

탈(脫)식민, 전쟁, 오이디푸스 대한민국

- 최인호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

허 관 무(동국대)* · 고 재 석(동국대)**

< 목 차 >

1. 탈(脫)식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2. 전쟁의 흔적, 미국의 그림자, 기독교 의식(意識)
3. 상상의 아버지, 오이디푸스 대한민국
4. 나쁜 아버지의 정치적 (무)의식
5. 비(非)오이디푸스를 위한 대서사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최인호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반공주의, 친미 자본주의, 기독교라는 관념들이 서구 오이디푸스 구조의 역학적 원리로 작용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어 냈는지를 살핀다.

친미·반공 코드와 기독교 의식(意識)은 우리들의 (무)의식 안에서 상상적 아버지에 대한 향수와 그런 아버지에게 복종하려는 주의를 더욱 공고화 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미미한 존재로 만들거나 모성 등의 사적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열망으로 그려지지만 결국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로 회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최인호 초기 단편들에는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아버지 신화와

* 제1저자

** 교신저자

친미, 친일, 기독교 지향의 오이디푸스 국가를 완성해 온 우리들의 현재 진행형인 역사가 내재한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은 해방부터 오늘날까지를 아우르는 시대의 연속성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성과 적의(敵意)를 특징으로 하는 오이디푸스 구조의 탈출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핵심어 : 탈(脫)식민, 비(非)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의, 반공주의, 친미 자본주의, 기독교, 상상적 아버지, 가족주의

1. 탈(脫)식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19세기말부터 일제강점기, 근대적인 공화국을 지향해 나가던 해방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는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역사를 걸어왔다. 그러나 민족주의 기획에 하나였던 친일 청산의 실패와 다양한 좌우의 이념들이 뒤엎힌 한국전쟁으로¹⁾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은 모두 무화되고 한반도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신화화 된 아버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둘로 쪼개진 공화국에 공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남한에서는 모든 계급의 자리를 보수 우파 민족주의가 대신하며 친미 가면을 쓴 친일 반공주의와 기독교 원리주의가 국가를 지배하는 코드로 구조화 되었다.²⁾

해방 후 이승만은 ‘건국 아버지’(밑줄 필자 강조)였다. 1945년 10월 귀국한 그는 ‘국부’로 섬겨지며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맹목적 집단주의를

1) 한국전쟁은 당시 세계 냉전 질서의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너무나 다양한 이념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며 만들어 낸 발화(發火)였다.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2)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로 김용욱, 『우린 너무 몰랐다』, 통나무, 2019가 있다.

내세워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미국의 그림자 아래 사적인 권력 욕을 채워 나간 우리들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되기’에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1961년 5월 16일 새벽 나타난 또 다른 최고 지도자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밑줄 필자 강조) 자리를 꿰찬다. 그가 사라진지 벌써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역사 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불러내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가난한 나라를 근대화 시킨 ‘착한 아버지’로 평가하며 지난날 향수에 빠져들고 있다.³⁾ 이렇게 그는 역사 속에서 반공과 경제라는 수식어로 신성화된 지위를 향유해 왔고 이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반공주의와 미국의 자국 이익 중심의 국가 개입 안에서 그는 ‘건국 아버지’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성공을 역사적 연속성 위에 긍정적 결절로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일관성 쌍둥이를 보듯 과거로 회귀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시켜 우리 사회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은밀하게 숨어들게 했다.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서구의 오이디푸스적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종교와 도덕, 사회, 예술의 기원이 ‘모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⁵⁾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핵심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적대감이라는 양가적 감정이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계 속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아버지를 자신들이 욕망했던 아버지로 내면화해 변질시켜 오이디푸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해방 후 한국전쟁과 서구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의 오이디푸스 구조에 갇히게 된 것이다.

3) 비록 그에 대한 재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가 이룩했던 가시적 경제 성장만이 부각됨으로써 ‘조국 경제의 근대화=박정희’라는 신화는 의문을 던지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이 된다.

4) 역사가 단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 져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지만 박정희 시대가 갖는 권위주의적 사회 구조와 독재적 정치.경제, 그리고 시대를 넘어 선 동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5)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3, 234쪽 참고.

원래 우리는 비오이디푸스 구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⁶⁾ 하지만 대한 제국 멸망이라는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식민지 오이디푸스의 구조를 가져다주었다. 해방 후 미국(자본)에 의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의 로고스적인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로고스 중심의 오이디푸스 구조가 (무)의식화 되면서 우리들은 죽은(잃어버린) 아버지와 동일화 될 수 있는 ‘상상의 아버지’를 찾으려 애를 썼다. 그러나 거기에 반공주의(자유주의), 친미 자본주의, 기독교라는 관념으로 빚어진 아버지를 받들어 따라서 탈(脫)식민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민 국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최인호 초기 단편 소설들은 파편화 되어 있다.⁷⁾ 그러나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술꾼』은 두 시간에 걸쳐 단숨에 쓴 작품이다.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 배를 깔고 엎드려서 펜촉에 잉크를 묻히고 그야말로 백 미터를 달리듯 단숨에 쓴 작품이며, 『타인의 방』 역시 『문학과지성』 창간호에 의뢰를 받고 하룻밤 사이에 완성했던 단편소설이었던 것이다.”⁸⁾(밑줄 필자 강조)라는 그의 말처럼 그의 소설 속엔 그의 삶의 흔적이 (무)의식적으로 녹아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버지, 전쟁, 미국, 기독교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그가 태어났던 해방 때부터 청년 문화를 대표했던 70년대,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이었던 80년대까지 우리 시대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다.⁹⁾ 즉, 최인호 작품들은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6) 동양과 서양 문화의 차이를 오이디푸스와 비오이디푸스 구조로 설명한 논의로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가 있다.

7) 남진우는 최인호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의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그의 작품들이 수미일관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한다. 남진우, 『현대의 신화-최인호 문학의 기원』, 『최인호 중단편 소설선집』 1, 문학동네, 2002, 334쪽 참고.

8) 최인호, 『작가의 말』. 위의 책, 6쪽 참고.

9) 최인호는 어린 나이에(10여세 즈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되신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한 청년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독실한 카톨릭 신자

한국전쟁의 상처와 70년대 후반까지의 근대 산업 사회가 빚어낸 병리현상을 우리가 살아 온 삶의 궤적을 따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욕망이 뒤엉켜 있었고 어떻게 그 욕망이 만들어졌는가를 오늘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듬어 보아야 한다. 즉, 한국전쟁부터 시작하여 60~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탈(脫)식민의 역사적 시간을 밟아 가지 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신경화가 지속되면서 근대적 민주주의는 후퇴, 또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인호 초기 단편 소설에 대한 연구는 「술꾼」, 「모범동화」, 「처세술개론」 등 주인공인 어린이들에¹⁰⁾, 「타인의 방」, 「견습환자」, 「순례자」 등은 도시적 삶의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거나, 「미개인」, 「다시 만날 때까지」 등은 현실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보았다¹¹⁾. 이 가운데 「술꾼」, 「모범동화」, 「처세술개론」, 「위대한 유산」 등은 등장하는 아이들 대부분 어른들의 허위를 적발하거나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드러내 보인다는 견해가 많았다¹²⁾.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 작품을 단지 현실에 대한 허위와 증오, 적대감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최인호라는 작가의 사적 경험을 70년대의 특수성과 연결시키는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시대를 넘어 선 문학 작품의 보편성 획득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와 차별화 된 최근의 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권은수는 「월전에 대한 철저한 깊이 읽기」에서 출발하여 「술꾼」, 「처세술개론」, 「위대한 유산」, 「모범동화」 등 최인호의 초기 소설 속 어린이들의

이기도 했다.

10) 김현은 어른보다 교활하고 잔인한 아이들을 통해 삶의 어려움과 그것에서 기인하는 규제된 삶의 허위성을 그려냈다고 평가한다. 김현, 「강준식의 ‘증세’, 최인호의 ‘모범동화」, 『김현 문학전집』 15, 문학과 지성사, 1993, 390쪽 참고.

11) 권은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6쪽 참고.

12) 김진기.조미숙, 「최인호론-문학성과 시대성의 관계」, 『한국현대작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485~486쪽 참고.

특수한 세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조명한다. 그는 최인호 소설의 어린 주인공들은 현실을 뒤집어 놓은 창조적 성격의 인물이며 사회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집중시킨 특수한 개인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물이 서사 속에서 다른 인물들 혹은 체제와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이 갈등은 개인과 체제에 관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보편성 확보를 시도한다¹³⁾. 즉, 서사 속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를 어린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객관적 시간의 흐름을 놓친 채 어른들과 맞서 싸우거나 원래 자신이 빠져나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사회질서와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 성인 사회에 안착하게 ‘통과제의’ 구실을 하는 ‘사회적 관계 속의 아버지의 존재로 파악한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개인과 사회의 경계에 놓긴 하지만 지나치게 아버지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내 관계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 최인호 초기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논의에는 미흡하다.

곽상순은 「술꾼」을 오정희 「저녁의 게임」과, 또 김영하의 「흙혈귀」, 「보물선」과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서사의 반전을 통해 욕망의 실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주체의 태도를 확인하거나¹⁴⁾ 탈주체적 인물 형상의 측면을 검토하여 반사실적 양상들을 추적해 봄으로써 라캉과 지젝의 논의에 바탕으로 이론적 주제들을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최인호 소설의 특질의 일면을 전경화 한다.¹⁵⁾ 그런데 아이의 현실적 결핍과 욕망이 실은 전적인 현실 부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반전이 일어났다는 그의 논의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아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택중은 「술꾼」을 인간의 존재 가치와 부조리에 초점을 두고 작품 속 부조리를 살펴봄으로써 최인호 작품의 문제가 70년대 초에 한정된 것이 아니

13) 권은수, 앞의 논문, 13~14쪽 참고.

14) 곽상순, 「서사의 반전과 욕망의 역설-최인호의 ‘술꾼’과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 『국제어문』 34, 2005.

15) 곽상순, 「탈주체적 등장인물 연구-최인호와 김영하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5, 2007.

라 현실 속 근원적인 문제로 바라본다.¹⁶⁾ 하지만 그는 단순한 현실의 부조리함만으로 이야기를 할 뿐, 그 부조리에 대한 근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 논의의 세밀함에서도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의 흔적과 함께 60~7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 산업화가 끼친 영향 등 오늘날 우리 삶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상을 물어내기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술꾼」, 「모범동화」, 「다시 만날 때까지」, 「인간희극」 등 최인호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반공주의, 친미 자본주의, 한국 기독교 등이 어떤 상상적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 그리고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관습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질서와 체제로 외연을 확대하여 이것들이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 구도(構圖)¹⁷⁾ 아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서구의 오이디푸스적인 것으로 구조화 해, 우리들의 현재 삶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어 냈는지 살피려고 한다.¹⁸⁾ 그렇게 해서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이끌어 온 역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의 시론(試論)적 틀을 의론(議論)해 보려고 한다.

2. 전쟁의 흔적, 미국의 그림자, 기독교 의식(意識)

「술꾼」에 등장하는 아이는 “잘 닦은 탄피처럼 번들거”¹⁹⁾는 작은 손을

16) 김택중, 「최인호의 ‘술꾼’에 나타난 부조리한 세계」, 『한국비평문학회』 17, 2003.

17) 프로이트의 가족 로망스는 자기들이 낮게 평가한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진짜 자신의 부모라고 상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부모가 실제 부모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가장 고상하고 힘센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를 높이려 한다. 프로이트, 이윤기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199~202쪽 참고.

18) 나병철은 가족로망스 이론을 바탕으로 성장 소설의 미학과 역사를 분석해 낸다. 나병철, 앞의 책, 347~502쪽 참고.

19) 최인호, 앞의 책, 94쪽 참고. 이하 쪽수만 표기.

갖고, “인형 병정같은 몸짓”(95)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 “연막탄을 뿌린 것처럼 뿌연게 탈색”(95)된 술집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다. 이름 모를 어른(사내)들은 “염색한 미군 작업복을 입고”(95) 있거나, 피난통에 여편네가 총알을 맞아 죽어 버린 아픈 경험을 웃으면서 얘기한다. 또한 “US ARMY의 표지가 계급장처럼 반짝이고”(96) 어떤 이는 전쟁에서 한 손을 잃고, 그 손의 분신같은 나이프로 병정 인형을 쥐고 있다. 모두 전쟁, 또는 그 흔적을 떠올리는 이미지들이다. 마찬가지로 「모범동화」에서 주인공 강씨는 ‘피난민’이었고 동란으로 가족을 잃고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완전히 혼자 살아간다. 그를 둘러싼 아이들은 “빨갱이와 싸울 때 다친 상처”(113)라는 거짓말에도 기관총을 난사하는 비장한 표정의 만화 주인공을 떠올렸다. 그리고 강씨를 상대하는 원판 역시 나이 먹은 피난민답게 음흉했다.

한편 강씨가 전학 온 아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설계한 게임은 그가 미군 부대에서 노역할 때 배운 장난이었다. 「다시 만날 때까지」에서는 ‘나’는 연맹에서 만난 미국인과 악수를 나누며 미국과 한국이 악수를 나누는 우유통에 그려진 상징적 그림을 떠올린다. 우유에 탐닉하는 어린 시절에 추억은 ‘전쟁통에 죽어 돌아온 형의 유품과 같은 우윳가루들이’(69)라고 비유되 듯, ‘나’가 서 있는 현재는 전쟁과 그 이후 우리에게 드리워진 미국의 그림자가 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긴장에 휩싸이게 할 뿐, 아직까지도 쉽게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서울의 확대판이었다”(70)말처럼 서울(한국)은 미국을 베껴가고 있었다. 수면제를 타서 쌍둥이를 재운 후 ‘나’는 눈을 감고 우리에게 드리워진 미국의 흔적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이방인이며 분명한 서양인’으로 ‘우리는 그들의 재갈에 물려 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방문한 미군들을 박수로 환영하고 추계 운동회 때 매스게임을 하듯 칫솔질을 하는 ‘나’와 아이들은 그들의 카메라 속에서 희희낙락하는 꼬락서니를 하는 광대인 것처럼 미국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 안 고아들도 외롭고 쓸쓸한 은퇴한 미국 노인들의 고독을 달래주는 인형일 뿐이다. 그래서 ‘나’처럼 아이들은, 머리는 미국인이고 얼굴은 동양인이 된다. 이렇게 전쟁의 흔적과 미국의 그림자가 기독교적 의식(儀式) 안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그러므로 기독교 단체

에서의 입양과 미국으로의 여정은 한국전쟁 이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²⁰⁾

정각 열시부터 우리는 S연맹 부속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와 함께 떠날 고아들은 보모의 손에 안기거나 좀 큰 놈들은 걸어서 나란히 예배를 보았다. …(중략)… 일단 기독교도 행세를 한 이상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며 나는 시카고까지 가는 여행길엿 제발 순한 녀석이 걸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울지도 못하는 백치가 걸려주었으며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우린 찬송가를 합창했다.²¹⁾

S연맹에서 만난 ‘나’와 세 아이를 비롯한 열다섯 명 모두는 남이다. 그들은 형의 옷을 빌려 입은 막내둥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나’는 한국전쟁 시절의 자신의 과거를 투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곧 부속 예배당으로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 구절이 반복되는 찬송가를 부른다. 이는 하나의 예식이다. 전유(專有)되어야 할 과거와 현재가 공유(共有)되며 남남인 서로가 신 앞에서 하나로 묶이는 그런 예식이다. 예수 앞에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 함께 (출발)하는 가족(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 되는 예식을 행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앞장섰다 러시아 혁명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반공주의와 애국적 종말론이 결합된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와 유사한 길을 밟았다. 즉 19세기 한국 기독교는 봉건적 구태를 일소하고 민중 계몽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192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와의 충돌,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친미,반공 코드와 강력하게 결합된다.²²⁾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 국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탄

20)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쟁을 전후한 과거 경험이 지속적으로 병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이후 산업화시기를 지나는 우리나라의 실재까지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 연구를 기약하겠다.

21) 최인호, 「다시 만날 때까지」, 『최인호 중단편 소설선집』4, 2002, 75~76쪽 참고, 이하 쪽수만 표기.

22)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푸른역사, 2009 참고.

절은 바로 기념일이 되었다. 그들의 강력한 후견인은 미국(인)이었다. 내각과 국회 등 사회 주요 기관에는 철저한 반공의식 속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친미 인사들이 가득했다. 이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거침없는 일본어로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친일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일본(해방 전)과 미국, 반공(해방 후)이 결합된 하나님 나라(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무너진 집더미가 어둠 속에 짐승처럼 있는 언덕 위 고아원으로 돌아가며 “내일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109)하는 슬픈 ‘아이’처럼 해체된 가족을 복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그토록 해매는 것이다.²³⁾

3. 상상의 아버지, 오이디푸스 대한민국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脫)식민과 친미(親美)주의, 그리고 한국전쟁 경험은 기독교 의식과 뒤엉키며 우리나라를 오이디푸스 구조의 시대로 들어서게 한다. 린 헌트는 프로이트의 『토템과 터부』에서 원초적인 아버지 살해 이후 남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의식을 누그러뜨리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와 신성한 아버지 자리를 비워 놓는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에 대한 동경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고 그런 아버지에게 복종하려는 관념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²⁴⁾ 그런데 우리 옛 아

23) 김동춘은 한국 개신교가 반공주의적 내용을 갖게 된 것이 1920년대부터라고 말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탄론’이 등장하고 종말론이 도입되었으며 급기야 반공은 구원사상과도 결합된다고 하였다. 개신교는 언제나 미국과의 일체감을 강조했으며 미국을 구세주 같은 존재로 보았다. 개신교 신앙은 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주체와 내면성의 상실이므로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언제나 대미의존적 사고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 김동춘 「한국의 지배집단과 반공주의」, 『반공의 시대-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186~192쪽 참고.

24) 린 헌트, 『프랑스혁명의 가족로망스』, 새물결, 1999, 9~10쪽 참고.

버지는 식민지 오이디푸스 권력에 독살 당했다. ‘대한(제국)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애초 호명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친 살해 의식과 근친상간 터부라는 서구적 근대의 가족 로망스 과정이 없었다. 식민지적 오이디푸스 권력에 의해 비(非)오이디푸스적 욕망이 해체되고 서구와 다른, 식민지적 상징계에 의한 욕망과 그것에 부적응 하는 무의식이 형성되었다.²⁵⁾ 그러므로 해방 후에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비(非)오이디푸스적 욕망을 회복해야 했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된 민족(국민) 국가의 꿈이 좌절되면서 식민지적 오이디푸스 권력은 서구의 오이디푸스 구조 안에서 지속되었고 우리들 내면의 트라우마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려 한다.²⁶⁾

민간인을 포함하여 45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우리 아버지들도 무수히 희생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낳아 준 생물학적 아버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욕망했던 이상적 아버지의 죽음을 동반했기 때문이다.²⁷⁾ 가장 큰 책임의 당사자인 ‘건국 아버지’는 반공과

25) 나병철은 식민지 사회와 해방 후 비오이디푸스 욕망이 부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병철, 앞의 책, 6~8쪽, 87~88쪽 참고.

26) 최인호가 1945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의 의식은 해방 후 우리 역사와 교류하는 아비투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새물결, 1995, 11쪽 참고.

27) 프로이트에 의하면 가족소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것과 관련한 사건으로,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갈등을 어머니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아이의 오이디푸스적 욕망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본다. 프로이트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본능과 충동으로 구분 하였고 라캉은 신경증이라고 규정하였다. 가족소설은 이 신경증에 걸린 아이 아버지의 ‘배반’과 아버지의 ‘반격, 즉 거세위협’으로 나타나지만 프로이트는 이러한 부자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애정과 존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많은 가족소설에는 아버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체하는 경우, 즉 유아가 아버지에 대한 과대평가가 어른이 되어서도 욕망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훌륭한 아버지와 동일시 하려고 하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이다. 어린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울’로서 실제의 부모에 대한 실망감에 상상 속 아버지를 만들고 그 허구적인 아버지를 존경하면

친미라는 미명 아래 마치 하느님과 같은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해 나갈 뿐이었다. 따라서 현실 국민들은 자신이 상상했던 아버지, 즉 화해의 공동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상적 아버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꾼」에서 아이가 찾는 아버지는 시대가 만들어낸 욕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현실 속에 부재하는 상상적 아버지를 욕망하는 것은 실재(역사)하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다. 그가 둘러싸인 현실은 “이제 너무 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저주하고, 마누랄 저주하고, 맏아들을, 둘째아들을 저주하고, 생활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원수놈의 월급을, 도대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97)하는 술꾼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전쟁의 상흔 속에 묻혀 맑게 개인 정신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 갈 수 없는 ‘술꾼’이다.

그는 갑자기 나이프를 들어 먼 나무 벽을 향해 던지곤 했다. 지금도 아이는 유치하게 그려진 남자의 성기 위로 혹은 심장 위로 번득이며 달리던 나이프의 금속성 소리 그것이 허공을 가르며 나무판자 벽을 뚫었을 때의 견고하고 건조한 음향, 열린 문틈으로 내다보는 한낮의 중유처럼 뜨거운 땀벌, 미칠 듯한 땀냄새들로 하여 무언가 숨이 막히고 막연한 적의가 끓어오르던 그 여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100)

위에서 보듯 그들은 전쟁의 흔적을 치유하지 못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들은 “사내의 한 팔만 남은 왼손이 아이와 목을 조르”(101)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생명마저도 위협에 이르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이에게 “바보같은 자식이”(104)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아버지들이다.

“술취한 주정뱅이 하나가 길바닥에 몸을 누인 채 자고 있”(104)는 것은 죽어 있는 실재(역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²⁸⁾ 이제 실재의 아버지는 죽

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 아버지가 아이의 삶 전반을 규제하고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체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필리프 윌리엄, 홍준기 역, 『노아의 외투』, 한길사, 2000, 21~39쪽 참고.

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있었던 이상적 아버지를 욕망하게 된다. “주체할 수 없는 머리통을 노상 이고 다녀야”(98)하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아버지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머리 총각”처럼, 그리고 “인물이 못난”, “깡깡이 소리”나 잘 내는 대상이 아닌 “옛날 옛날 옛적에 예쁜 딸을 가”(102)졌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술 잘 먹고 노래 잘하는 사윗감”(102)과 같은 상상 속 아버지에 대한 욕망이다. 그런데 필리프 켈리앵이 말하듯 상상적 아버지는 사실상 폭군 아버지이다. 또 폭군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진 복종은 사람들을 정치적 독재자에 대한 맹종으로 이끈다. 여기에서 폭군 아버지는 단순히 호통치고 야단치며,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아이가 지켜야 할 법(률)의 제정자’로 자처하는 폭군 아버지도, 겉보기에 아무리 자애로워도 자녀에게 죄의식, 열등감을 주는 아버지는 모두 상상적 아버지인 것이다.²⁹⁾ 최인호 소설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표상(表象)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가 찾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은 “국, 승, 현”(97)이다. 이 사람은 國(나라와 같이), 承(공경하여 높이 모실), 賢(어진 사람)이다. 아이는 바로 이와 같은 이상적인 아버지, 즉 현실 속에 부재하는 상상적 아버지를 찾아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는 거리와 술집을 헤매고 있다.

아버지만 찾으믄 만사 오케야요. 울 아바진 아즈반들하구는 달라요. 아바진 술꾼이긴 하디만, 하려구만 하믄 못 하는 게 없시오. 아, 구털 가디 구두 금을 만들어뒀으니까요. 금 말이야요.(96)

28)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찾고 있던 대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안식을 위해 찾았던 ‘무진’에서 마주치게 되는 후배 박, 친구 조, 하인숙, 미친 여자나 자살한 술집 여자 등은 바로 윤희중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나’이다. 허관무 줄지, ‘내 안에 너, 나, 우리들-『무진기행』 읽기’, 『국어문학회』56, 2014.

29) 필리프 켈리앵, 앞의 책, 30~32쪽 참고.

구리를 가지고도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아이가 자랑을 늘어놓는 ‘전지전능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오직 미국일 수밖에 없다. 전쟁으로 야기된 끔찍한 현실을 넘어 설 수 있는 시대의 의지가 그들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를 모색해 보려는 인물들의 노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하느님을 외치는 자리로 여정을 떠나거나 존재할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상적인 상상의 아버지에 대한 욕망을 현실 속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되는 대상, 상황)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전쟁으로 유린된 우리의 현실이 놓이게 된다.

오마니가 죽어가고 있시오. 방금 피 토하는 걸 보구 막 뒤나왔시오. 입으로 빨건 피를 토하구 누워서 가느다란 목소리루 날더러 아버지를 찾아오라구 했시오. 아버지만 찾으면 오마니는 나올 수 있시오.(102)

죽어가는 어머니,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도덕적 규범과 전통적 윤리가 무너져 버린 우리의 현실이었다. 전쟁으로 부재하는 아버지를 대신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마저 무능하고 타락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즉 상상 속 아버지에 대한 욕망은 더욱 더 배가 된다. 또한 살아남은 무기력하고 천박한, 그리고 불결한 아버지를 거부하고 싶은 욕망도 함께 갖고 있다. “몸에선 양파냄새가 나구, 뒷주머니엔 항상 마늘을 넣구 다녔시오, 그리고 술만 먹으면 항상 울곤”(95)하는 아버지는 거부의 대상이다. 양파 냄새와 마늘로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늘 울기만 하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만나게 되어서는 안 될 대상이다. 그리고 “아버진 이제 필요 없”(107)다고 말하면서 모든 현실 속 아버지를 부정하게 된다. 현실 속 아버지를 추방하고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상상 속 아버지를 맞이하려는 소년의 의지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엄숙해 보이기”(107)까지 한 것이다. 추방된 실제의 아

버지와 의 관계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소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이 욕망하는 이상적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다. 무기력한 실제의 아버지와는 분명 다른 아버지를 말이다.

하지만 식민화된 아버지(무)의식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한 우리에게 한국전쟁 경험은 오히려 상상적 아버지에 대한 향수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복종하려는 관념은 한층 강화된다. 또한 4.19 실패와 5.16 이후 신격화된 ‘근대화 아버지’는 친미, 반공을 앞세워 이상적인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고 평등하게 권력을 나누는 형제(애)들의 연대조차 용납되지 않는 가부장적 오이디푸스 구조를 더욱 공고화 한다.

4. 나쁜 아버지의 정치적 (무)의식

린 힌트는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을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에 의해 틀이 정해진 일종의 집단적, 정치적 무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⁰⁾ 이번 장에서는 이것을 통해 실상 폭군이나 다름없는 상상적 아버지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좋은 아버지로 이미지화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최인호 작품 속 모든 아버지는 술을 마신다. 일회성이 아닌 술꾼에 가까운 모습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며 술에 집착한다.

술꾼들은 이제 너무 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저주하고, 마누랄 저주하고, 말아들을 둘째아들을 저주하고, 생활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원수놈의 월

30) 린 힌트, 앞의 책, 9~10쪽 참고. 물론 린 힌트는 그것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18세기 유럽인들은 지배자를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국가는 대규모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족이라는 격자(格子)는 의식적 차원과 무의식적 차원 모두의 경험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의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급을, 도대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다.(97)

여기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있는 큰 어른들이다. 하지만 평양집에서 만난 낮익은 사내들도 연탄을 훔쳐 빼돌리는 것으로 직업을 삼고, 모자라고 별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쁜 아버지들이고 도화역자(道化役者)였다. 그것은 ‘도화사(道化師) 역(役)을 맡은 놈’이라는 뜻인데, 도화사(道化師, clown)는 연극에서 ‘재주를 부리거나 익살을 떠는 역할을 맡은 배우’를 말한다. 한 단어로 하면 ‘익살꾼’이나 ‘어릿광대’쯤 된다. 이렇게 얼치기 사기꾼 같은 웃음을 보이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익살을 부리는, 그러 어린 아이를 놀려 먹는 어릿광대일 뿐이다. 또한 기독교 의식(儀式)으로 하나님께 신 곳에서 고아 세 명과 함께 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게 된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공항과 비행기라는 공간 안에서 어른인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도덕감 따위는 아예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기혼자라는, 기독교 신자라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며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비도덕적 인간이다.

한편 「인간희극」은 ‘나이 든 청년’³¹⁾, 아니 ‘무서운 정력을 가진 괴물’인 (208) 아버지와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209) 형제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네 명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질투’와 ‘승부의식’을 느낀다. 아버지는 ‘죽음의 사자처럼’, ‘신의 힘을 빌려’,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맏형은 아버지가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변태라고, 셋째형은 빨리 죽어야 할 악마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왕국’은 ‘자식들에 의해서 암살이 자행되지만 앓는다면’ 절대 소멸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의 죽음을 원하지만 그것은 죄악(야만)이고 나쁜 아들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화불량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은 극단적인 중오심을 드러낸다.³²⁾ 「술꾼」에서도 전쟁에서 오른손을 잃은 사내는 죽음을 느낄

31) 최인호, 「인간희극」, 『돌의 초상』, 문학동네, 2002, 208쪽 참고. 이하 쪽수만 표기.

정도로 나이프를 아이에게 던져 위협을 한다. 유치하게 그려진 남자의 성기 위로 혹은 심장 위로 나이프를 날리는 사내의 행동과 아이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 그리고 죽일 듯이 목을 조른다. 팔을 잃은 사내는 나이프를 꺼내 아이의 목을 겨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고 사내는 아이를 죽이려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아이(민중)들은 자애로운 아버지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책임을 소거(掃去)시켜 자애롭고 관대한 좋은 아버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모범동화」에서는 이것을 전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강씨의 운명(殞命)을 통해 구현된다. 그가 죽은 후 조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학교 아이들에 의해 장례식이 거행되는 것에서 다른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와 같은 절대적 권위를 부여 받고 있다.

강씨는 어린이 국회의 치외법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그가 아닌 다른 가계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틀려먹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권위는 아이들에게 이미 굳어진(반복된 각인에 의한) 잠재 의식이고 그의 처세와 교묘한 연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어른들에게서 진실로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도 잘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모두 열쇠 구멍으로 어른들을 엿보기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어린애들은 코안경을 높이 세우고 도덕을 역설하던 어른들도 일단 열쇠 구멍을 통해 볼 때는 비루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열쇠 구멍 저편에서는 변하기 마련인 이론만의 윤리와 도덕을 저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누구든 어른들의 은밀한 모범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강씨로서는 아이들에게서 찬사를 받는 것쯤은 쉬운 일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학교 앞을 손수 비로 쓸었고, 어린이 회의에서 수재의연금

32) 황도경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자신의 강렬한 욕망을 버렸다고 말한다. 황도경, 「구멍의 늪, 혹은 구원의 노래」, 『돌의 초상』, 문학동네, 2002, 382쪽 참고.

모집 안건이 통과되면 아깝지 않다는 듯 헌금을 했다. …(중략)… 그 순간 강씨는 웃으며 이 상처는 빨갱이와 싸울 때 다친 상처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이런 얘기가 분명 아이들 간에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³³⁾(밑줄 필자 강조)

강씨는 상처를 빨갱이와 싸울 때 다친 것이라고 조작하며 아이들로부터 존경의 훈장을 받는다. 이런 그가, 권위와 존경을 받아왔던 그가, 그리고 꿈속에서도 전학 온 아이로 인한 갈등으로 악몽을 꾸고 불면의 밤을 보낸 그가, 그 아이로 인해 과거의 아픈 상처가 다시 아파올 수 있다고 느끼던 그가 죽었다. 이제 ‘내가 잘못했다’며 털보 강씨의 죽음을 예언한 아이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아이들도(형제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년의 눈물을 발견한 꼬마 친구는 사탕맛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에게 여름조차도 구석구석까지 냉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강씨(아버지)는 그리운 아버지가 되어 우리들의 상상적 아버지로 (무)의식 속에 이미지로 새겨진다.

그런데 최인호의 단편들에서는 착한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어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술꾼」에서 돈도 있고 주량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은 어린 아이가 아닌 엄숙한 한 남성이다. 그리고 그는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키우기 위하여 논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하는 사람처럼 결실을 얻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술만 먹으면 우는 아버지와 달리 그는 절대 울지 않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의 소설에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소망이 내재하고 있다.

한편, 최인호 단편에서는 가족 간의 화해에 여성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의 존재가 지워져 있다.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인물들이 남성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생활력을 갖고 있는 남성 앞

33) 최인호, 「모범동화」, 『최인호 중단편 소설선집』1, 2002, 113쪽 참고. 이하 쪽수만 표기.

에서 그 존재가 미미해 지거나 모성 등의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대신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 단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을 둘러싼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³⁴⁾ 그것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열망으로 그려지지만 결국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로 회귀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폭군이 아니라 양육자이고 새로운 사회의 상징적 존재인 아이들을 이끌어 갈 목자로 가족(국가) 안에서 절대성을 부여받는다.

5. 비(非)오이디푸스를 위한 대서사

동양문화는 서구와 달리 오이디푸스 구조에서의 원초적인 아버지보다는 인간과 사물의 힘(氣)이나 생명력을 관장하는 ‘자연’에 가까운 신을 갖는다. 자연으로서의 신에 의해 생성된 동양문화의 세계에서는 원래부터 죄의식을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잔존하는 죄의식 없는 욕망이나 자연의 생명력 등, 즉 자연과 화해를 지향하고 생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비(非)오이디푸스적 욕망’이 있다. 이것은 오이디푸스적 사회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의 소망을 의미한다.³⁵⁾ 동시에 절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오이디푸스 구조를 넘어 설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非)오이디푸스 서사를 통해 서양문화와 다른 실제적 동양문화의 힘의 작동 원리를 찾아 서구와 다른 우리들의 탈(脫)식민의 방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만날때까지」에서 ‘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했다.センチ멘털한 동정 때문이긴 했지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핏줄이며’, ‘그들에게 파스하게 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나쁜 아버지’인 자신에 대한 이런 반성과 후회는 권위적

34) 권은수, 앞의 책, 6쪽 참고.

35) 나병철, 앞의 책. 6~7쪽 참고.

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서 착한 아버지로 변화한다. 이런 인식과 깨달음은 규율을 지키고 함께 청소 해야만 하는 ‘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결정적 계기(契機)는 ‘나’가 좌석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웃음과 몽고반점을 보고 난 후였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절대적 지위(권위) 대신, 입양되는 형제들과 공동체 회복을 희망한다. 즉 아버지의 빈자리를 형제들과의 연대로 채워 나가는 삶으로 뒤바꾸는 순간이다. 자신을 보고 웃는 아이들의 웃음이 우연히 떠오른 웃음이 아님을 깨닫고 애정(연대)을 느낀다. 아이들의 엉덩이에 선명하게 엿보이는 몽고반점, 그것은 민족의 동질성이다. 또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진 미국 시카고 도착 삼십여 분 전 ‘나’는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씻긴다. 아이들은 차디찬 물이 닿아도 절대 울지 않았다. 그리고 연석과 세 번째로 화장실 안에서 단 둘이 같이 한다. 겁을 주기 위한 것도, 라이터를 돌려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칫솔을 함께 공유(마치 몽고반점처럼)하며, 한 핏줄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쌍둥이를 안은 ‘나’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보모들에 의해 길러진 고아들이다. 아버지가 부재한 그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양부(養父)의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카우보이 모자에 카우보이 권총을 들고 ‘토마스 배’로 탈바꿈한 연석은 이제 외국식 사고로 잡종 튀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애틀에서 그들의 몽고반점을 보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연석이 부르는 노래는 동요이다. 순수함과 우리 고유함을 담고 있는 동요이다. 그런 동요가 시애틀에서 받은 장난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음과 동일함을 알고 우리 것이 아님을, 원래 외국 곡에 우리말을 덧씌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비(非)오이디푸스 공동체에서 탈주해 미국의 그림자를 가득 머금은 서구의 오이디푸스 구조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온 우리들의 현실을 노래하는 듯하다. ‘나’는 헨더슨과 이별하며 만날 수 있을까를 묻는다. 그것은 헨더슨과의 재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 아이들과의 다시 만남을 묻는 것이다. 헨더슨의 대답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을 갖고 마지막 김포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가족의 예식을 행하기 위해 불렀던 그 찬송가의 구절을 떠 올리며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인(미국)에게 아버지라는 권위를 넘길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 비(非)오이디푸스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탈(脫)식민을 했지만 전쟁의 상처를 안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거대 서양 제국이 만들어 놓은 오이디푸스 구조로 빨려 들어갔다. 거기엔 우리가 열망했던 (착한) 아버지의 존재가 나타날 수 없었다. 그 곳에서는 반공을 기치로 미국과 일본을 기독교의 ‘절대신’으로 숭배하는 일제 식민지 아버지가 낳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되어 우리에게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것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근.현대사에 그대로 녹아 있다.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 국가 체제는 자유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로서 상부구조가 형성되었다. 그것으로 절대 권력을 갖게 된 아버지와 옛 아버지를 살해했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역사를 창조해 갔다. 그것에 저항하는 아들(민중)들은 한 민족의 후예도, 한 국가의 국민도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한국사회는 가족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아버지 신화와 혈연적 집단주의로 민족주의를 구성해, 반공주의와 친미 자본주의, 기독교 지향의 오이디푸스 국가를 완성해 왔다.

이와 같이 최인호 초기 소설에서는 해방 후 지속되는 부조리한 사회적 현상의 비동시적인 동시성을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의 시대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만 볼 수 없다. 그의 소설 속 사회 혹은 시대상은 해방부터 오늘날까지를 아우르는 시대의 연속성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 왔던 반공주의, 친일 식민주의, 친미 자본주의, 한국 기독교라는 역학적 원리를 바꿔, 계급과 계층의 대립, 전통과 근대의 부조화, 극단적 국가주의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우리 사회를 절대성과 적의(敵意)라는 양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이디푸스 구조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상순, 「서사의 반전과 욕망의 역설-최인호의 ‘술꾼’과 오정희의 ‘저녁의 게 임」, 『국제어문』 34, 2005.
- 곽상순, 「탈주체적 등장인물 연구-최인호와 김영하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5, 2007.
- 권은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 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9.
- 김진기·조미숙, 「최인호론-문학성과 시대성의 관계」, 『한국현대작론』, 건국 대학교 출판부, 2002.
- 김동춘 「한국의 지배집단과 반공주의」, 『반공의 시대-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 김용욱, 『우린 너무 몰랐다』, 통나무, 2019.
- 김택중, 「최인호의 ‘술꾼’에 나타난 부조리한 세계」, 『한국비평문학회』 17, 2003.
- 김현, 「강준식의 ‘증세’, 최인호의 ‘모범동화」, 『김현 문학전집』 15, 문학과지 성사, 1993.
-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 2007.
- 남진우, 「현대의 신화-최인호 문학의 기원」,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02.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푸른역사, 2009.
- 최인호, 『최인호 중단편 소설선집』 1, 문학동네, 2002.
- 최인호, 『최인호 중단편 소설선집』 4, 문학동네, 2002.
- 허관무, 「내 안에 너, 나, 우리들-‘무진기행’ 읽기」, 『국어문학회』 56, 2014.
- 황도경, 「구멍의 늪, 혹은 구원의 노래」, 『최인호 중단편 소설선집』 4, 문학 동네, 2002.
-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새물결, 1995.
-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런 헌트, 『프랑스혁명의 가족로망스』, 새물결, 1999.
- 프로이트, 이윤기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참고.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3.

필리프 쥘리앵, 홍준기 역, 『노아의 외투』, 한길사, 2000.

【Abstract】

Postcolonial, War, Oedipus Republic of Korea

— Based on Choi In-ho's early short stories —

Huh, Kwanmoo · Ko, Jaeseok

The study is aimed at focusing on Choi In-ho's early short stories about how the concepts of anti-Communism, pro-American capitalism and Christianity worked as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Western Oedipus structures to create distorted self-portraits in our society. Pro-U.S., anti-Communist codes and Christian ceremonies made the nostalgia for the imaginary father and the idea of obeying such a father even stronger in our consciousness(or Unconscious). And it has made a woman's role insignificant or pushed her into the private realm of motherhood and so on. It also led to a tendency to focus more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In the end, it is described as a desire for a good father, but comes back as a father with absolute power. Choi In-ho's early short stories hide our ongoing history of completing our father's myths and pro-American, pro-Japanese and Christian-oriented Oedipus nation based on familyism. Therefore we must grasp his novel from the continuity of the period from liberation to the present. And within it, we must seek to escape the Oedipus structure, which features absoluteity and antagonism.

Key words: Postcolonial, Non-Oedipus, Oedipus, anti-communism,
pro-American capitalism, Christianity, imaginary
father, familyism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